

인공지능과 '편지 읽어주는 여자'

작가 에세이

김효비아

인문학 강사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얼마 전 시골집을 수리했다. 부모님과 함께 내가 꿈을 키웠던 곳,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들과 시골의 정서를 만끽했던 허름하지만 시골의 정서가 가득 담긴 집이었다. 수리하는 날, 며칠 전부터 집을 정리했지만 여지껏 한창이다. 옮기고 버리고, 정리해도 끝없이 나오던 온갖 물건들. 뭘 그리 많이 갖고 살았는지 정리해야 할 물건들이 가득했다. 그런 잡동사니를 빗자루로 쓸고 물걸레로 닦던 중 다락방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보따리 하나가 마치 '나를 꺼내주세요' 하는 듯 눈에 띄었다.

새장에 갇혀 죽어가는 새의 외마디처럼 환성이 들리는 듯 한참동안 기시감이 들었던 그 보따리는 이제는 흑백영화의 모티브가 되어버린 '국군 아저씨' 보냈던 편지 봉지였다. 도시에 살면서 고향의 품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보따리의 의미를 알까. 어쩌면 필자가 즐겨 보는 영화 채널에서 '그녀 (Her)'를 보고 나서 그 당혹스러운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영화는 요즘 그야말로 온갖 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챗GPT'의 실험적인 성격을 띤 인공지능과 인간의 존재론적 의문과 질문이 뒤섞여 있었다. 편지를 대필해 주는 작가와 인공지능인 여자 사만다가 감정을 교류하고 사랑하는 연인으로 발전하다가 다시 이별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인화 된 미래의 인공지능체계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스스로에게 집요하

게 매달리고 있는 질문은, 과연 주인공 남자와 인공지능 사만다는 진정한 관계 맺음을 했을까였다. 로맨틱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때로는 양달도 부리고 사랑싸움도 하지만 사만다를 과연 생명체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었다. 영화에서 사만다가 가장 슬퍼했던 부분처럼, 육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생물이나 기계처럼 취급해도 되는 것일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차라리 극단적인 예시로, 육신은 존재하지만 정신활동을

"비록 또 다른 예측불허의 인공지능 (AI)의 출현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 했던 데카르트의 명제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생각하는 갈대' 로서의 나는 오늘도 밤이 깊도록 누구에게나 읽어줄 편지를 쓸 것이다."

할 수 없는 식물인간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 환상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사실은 둘 사이의 끈끈한 공감과 소통의 도구가 편지로 부터 시작되었음을 상기하면서 '나와 편지에 관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갔다. 소녀시절 필자는 거의 매일 밤 편지를 썼다.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국군아저씨'에게 보냈던 편지봉지처럼 나에게 편지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몸짓 언어의 유일한 도구였다. 문학소녀였던 필자를 유독 아껴주셨던 선생님도 국군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교실마다 다니며 급우들 앞에서 낭독을 시켰다. 필자 또한 그 무렵부터 어렵듯하게어나 운서나 성우가 되는 미래를 상상하곤 했다. 돌이켜보면 현재 필자가 시를 낭독하고 낭송하면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 편지 갈피 사이 배어있는 따스한 감촉과 향기로운 숨소리를 재현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다.

세상이 정말 바뀐 것일까. 그런 우리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주변 이야기거리가 온통 '챗 GPT'로 쏠려 있다.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는 주어진 질문과 문맥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공지능과 구분된다. 전문서적을 번역하고 연설문이나 보고서도 작성까지 가능하다. 인간과의 대화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일기나 여행 감상문이나 자서전이나 편지도 대신 써 줄 수 있을까. 특히 편지야말로 공식적인 문서와는 다른 미세한 사람의 감정과 심리와 생각까지도 표현 언어로 쓰는 창조예술이 아닌가. 다행인 것은 '챗 GPT'의 등장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 묘사하는 시인과 예술가의 능력까지는 학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과학자들의 낙관론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도하고 있는 수업에서 편지 쓰기를 과제로 낸 적이 있다. 어느 회원은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를 읽으며 울컥, 떨리는 목소리로 참으로 오랜만에 순수했던 소녀로 돌아가는 경험을 했다며 수줍게 고백을 했다. 비록 또 다른 예측불허의 인공지능 (AI)의 출현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 했던 데카르트의 명제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생각하는 갈대' 로서의 나는 오늘도 밤이 깊도록 누구에게나 읽어줄 편지를 쓸 것이다. 고양이 가 짝을 찾아 해매는 듯 창문을 흔드는 것 같아서 열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속삭이듯이 고양이에게 이 글은 먼저 읽어주고 있다. 고양이가 잠잠하게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서, 지금 이 순간, 훈풍처럼 감싸줄 체온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통한 듯 하다.

의정단상 | 채은지 광주시의원



'책임 부재의 시대' 탈출 전략은

지난해, 이태원에서 149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참사는 분명한 사회적 재난이며, 행정안전부의 책임 소홀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전 국민적 공분을 샀고, 결국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그렇다. 윤 대통령은 식민사관에 가까운 '3·1절 기념사'로 비판받았고, 또 닷새 만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3차 변제'를 내놓았다. 황당하게도 범죄 행위 주체인 일본 측의 책임을 아무런 근거 없이 면제해버린 것이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당연히 환영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인 우리 국민은 사과도 받지 못한 채 굴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사 문제와 민생 문제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 암담하다.

대통령선거 기간 당시 우려했던 검찰 공화국이 현실로 다가왔다. 어떠한 자리에도 검사가 제일 적합하다는 검찰 만능주의는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의 아버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치솟은 난방비는 추운 겨울 국민들의 뼈를 시리게 했고, 수출 위축과 내수 둔화, 고용 증가세 약화로 우리나라 경제 암흑기는 지속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 본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고 있다면, 적어도 이러한 대혼란의 상황에서 여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어퍼컷을 날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우리 광주시에서도 책임의 부재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이슈가 된 '특전사동지회 국립5·18민주묘지 기습참배'와 '김대중센터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오월 단체 중 일부와 특전사동지회는 화해와 용서 전에 사과와 진상규명 협조가 먼저라는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기습참배를 했고,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 행사를 개최했다.

5·18민주화운동은 단지 오월 단체의 것만이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의 것이니 함께 책임과 아픔을 나눠야 한다고 배우고 자랐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 무게를 기꺼이 견뎠다. 그런데 그 세월이 무색하게 갑자기 오월 단체 일부만의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됐다. 진정

한 대중세상을 향한 오월 단체의 책임감은 이제 희미해진 것이 아닐까. 그 책임이 여전히 선명했다면, 포용과 화해와 대국민,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행사를 강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 필자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김대중센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직원의 고충을 확인했을 때, 기관장이 책임을 느끼고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사건 이후 진행된 인터뷰,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사과의 기회는 충분했다. 그러나 기관장은 끝까지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피해자 탓을 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인권옹보즈맨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데 이어, 최근 노동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인정됐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는 기관장의 답변은 두 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이후로 바뀌었다. 기관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 행정은 또 어떠한가. 하루걸러 하루씩 이슈들은 양산되는데,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공공기관 통폐합, 추수 제한 폐지, 신양파크호텔 논의 백지화 등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유로, 제목만 준비된 상태로 발표부터 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일까. 아마도 집행부는 스스로 더 큰 책임을 느끼기 위해, 그리고 그 책임을 오히려 감내하기 위해 '선발표 후론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리라. 감히 짐작해 본다.

그 누구도 책임의 무게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지금 많은 권한을 행사하거나 높은 보상을 받고 있다면, 이는 바로 '책임 값' 때문이다. 권한과 보상은 곧 책임의 무게와 비례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편적 진리가 아닌가.

책임 부재의 시대 탈출! 전략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직원의 안위를 보살피기.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시장은 시장답게, 기관장은 기관장답게. 물론, 시의원도 시의원답게.

인간이 지배한 지질시대, 인류세(人類世)

기고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우리는 이제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파울 크루첸이 주장한 말이다. 인류세 (Anthropocene)란 인류를 뜻하는 'anthropos'와 시대를 뜻하는 'cene'의 합성어다. 2014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인류세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환경, 기후, 생태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간주하는 지질학적 시대"로 정의된다.

지구 역사는 지각변동과 기후변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지질학적 흔적 즉 지층, 화석 등을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지질시대의 단위는 가장 큰 것이 누대(累代)이고, 다음은 대(代), 기(紀), 세(世), 절(節)로 세분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질시대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 메갈라야절에 속한다. 홀로세는 빙하시대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진 시기로 지금부터 약 11,70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메갈라야절은 지금부터 4,200년전에 시작되었다.

인류세라는 말은 지구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이 커지면서 1980년대에 유진 스토포머가 처음 발표한 용어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였던 크루첸의 영향력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이후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면서 네이처, 사이언스와 같은 과학잡지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학 등 전체 학계에서 담론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 인류세가 함축한 의미가 기존 지질시대 이름처럼 지질학 범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활동 요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인류세가 아직 공인되지 않은 지질시대인 만큼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대표하는 화석은 무엇일까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인류세 시점에 대해서는 인류가 최초로 농경을 시작한 신석기 농업혁명으로부터 생물군 이동과 전염병 확산 그리고 자원수탈의 대항해시대, 18세기 후반 화석연료 사용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한 산업혁명 이후, 가장 최근의 20세기 중반 핵실험 이후 방사능물질이 확산한 시기까지 다양하다.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는 대기중 이산화탄소, 방사능물질, 알루미늄, 콘크리트, 플라스틱 심지어는 닭뿔까지 제시되고 있다.

최근 인류세 워킹그룹(AWG)은 인류세의 시점을 20세기 중반으로 정했는데,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 시스템과 세계 사회경제 지표의 추세와 경

향이 극적인 속도로 증가하는 대가속시대(Great Acceleration)와 일치한다. 올해 들어서는 지질시대를 홀로세와 같은 세(世)로 할지 홀로세에 속한 절(節)로 할지, 이를 대표할 표본지를 어느 곳으로 선정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인류세의 공식화 여부는 워킹그룹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제총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학계의 인류세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인간이 지구환경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며, 인류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6억년의 지구 역사를 365일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인류는 12월 31일 저녁 7시에 지구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산업혁명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2초 전에 시작되었다. 수많은 생물이 탄생했다가 멸종했고, 다섯 번의 대멸종도 있었다. 중생대 백악기말에 멸종한 공룡은 지구상에 14일간 머물다 사라졌다. 인류는 공룡보다 더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인류는 영속할 수 있을까? 인류세 논의를 지켜보면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지구에 잠시 머물다 사라질 존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전라남도 탄소중립주간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페미니스트 단체 회원들이 공연하고 있다. 산티아고=AP/뉴시스